



numbers
EXCLUSIVE vol. 271

목회자의 신학교육 인식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5년 언론사 신년 정치여론조사 주요 결과
- ② 중도층(무당파)의 정치 성향 분석

[넘버즈 칼럼]

안락사 논쟁과 마주한 현대 교회

2025. 1. 1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학교 4년 과정(혹은 일반대학교 학위 취득 후 신학대학원 진학 가능)을 이수한 후,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후 강도사나 수련목회자 과정을 거치며 최소 5~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기독교 인구 감소, 교세하락 등의 영향으로 신학교 지원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의 정규 신학교 과정이 과연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우리 연구소에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의 신학교육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넘버즈를 통해 발표한다.

본 조사는 신학교육에 대한 목회자들의 다양한 인식을 분석하여 한국교회와 신학교육기관, 그리고 각 교단이 무엇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신학교육이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목회자 양성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신학교육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담임목사, 부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 표본) (담임목사 : 250명, 부목사 : 250명)
표본 추출	유의할당추출(Quota Sampling)
자료 처리	- 담임목사: 교회 규모별 가중치 적용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4년 8월 20일 ~ 8월 23일(4일간)
조사/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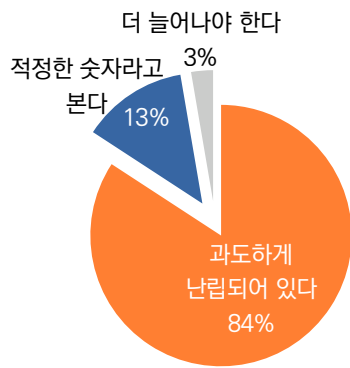
01

[한국 신학교육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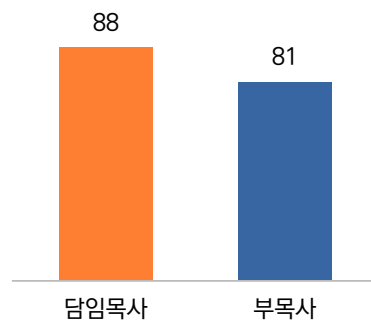
목회자 대부분, 한국의 신학교육기관 ‘과도한 난립’ 우려!

- 현재 한국의 신학교육기관의 수적 현황에 대해 목회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목회자의 대부분(84%)은 ‘과도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적정한 숫자라고 본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 ‘과도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비율’은 ‘부목사’보다 ‘담임목사’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한국의 신학교육기관 수적 현황에 관한 인식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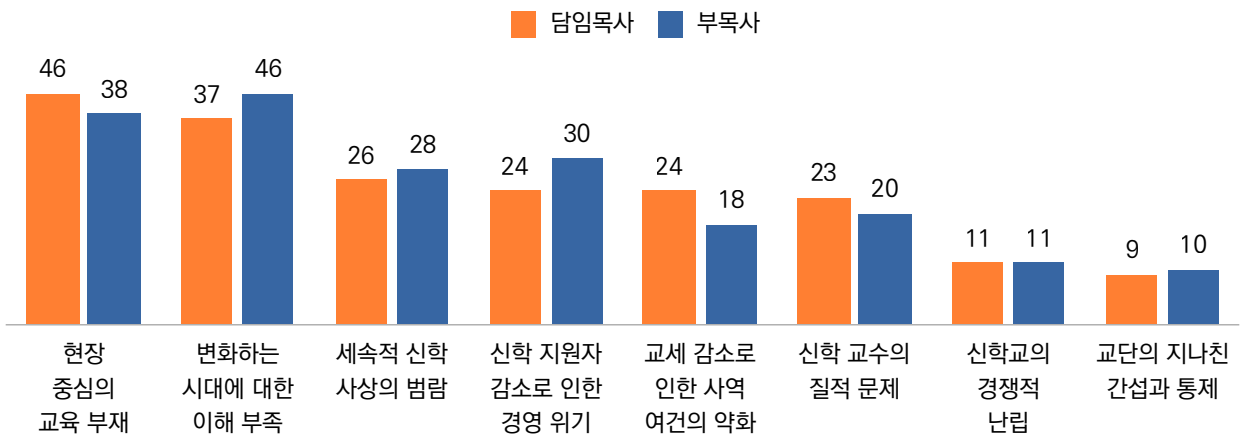
[그림] 응답자 직분별 ‘과도하게 난립되어 있다’ 비율 (목회자, %)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담임목사),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

-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1+2순위)으로 담임목사는 부목사 대비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를, 부목사는 담임목사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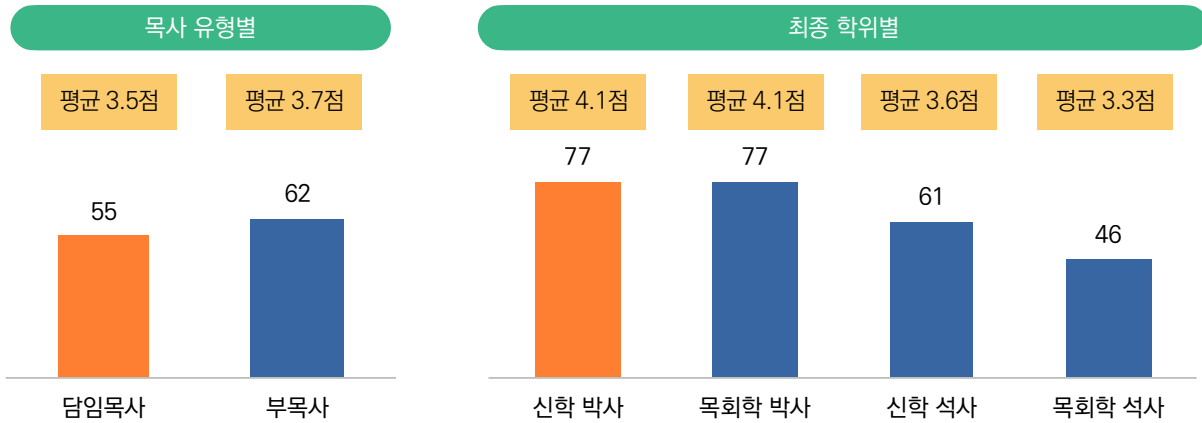
[그림]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 (목회자, 1+2순위, %)



정규 신학교육 만족도(담임목사), 5점 만점에 3.5점으로 낮은 편!

- 정규 신학교육에 관한 목회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담임목사의 경우 정규 신학교육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5점(55%)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부목사도 3.7점(62%)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현장 목회자들의 신학교육 만족도가 높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 최종 학위가 ‘목회학 박사’(77%)와 ‘신학 박사’(77%)인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목회학 석사’(46%)는 절반에도 못미치며 가장 낮았다.

[그림] 정규 신학교육 만족도 (목회자,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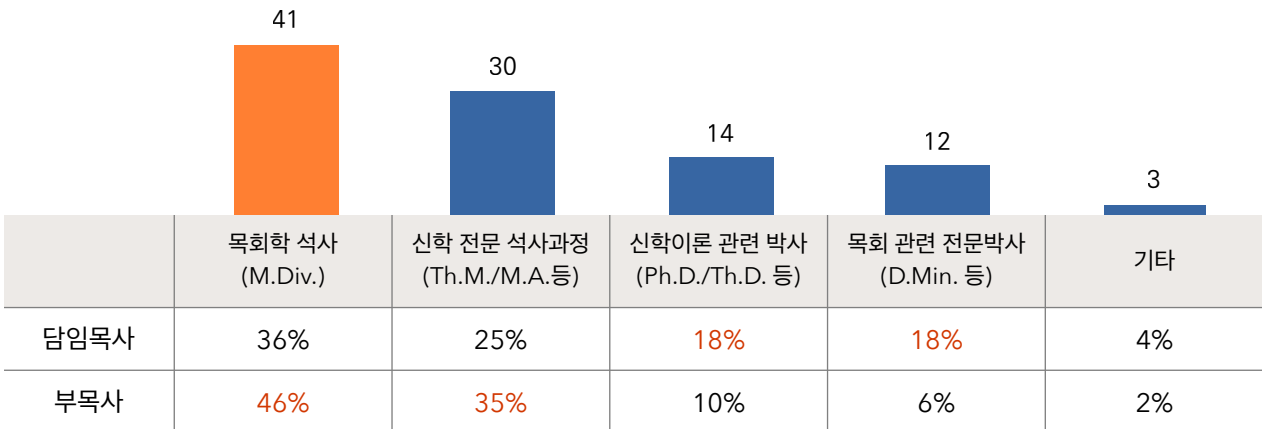
*5점 척도

02

[목회자의 신학교육 경험] 목회자 최종 학위, '목회학 석사' 비중 가장 높아!

- 신학 관련 최종학위를 묻은 결과, '목회학 석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학 전문 석사' 30%, '신학이론 관련 박사' 14%, '목회 관련 전문박사' 12% 등의 순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목회학 석사(M.Div.)는 보통 일반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담임목사는 '신학이론/목회 관련 박사'인 비율이, 부목사는 '목회학/신학 전문 석사'가 최종학위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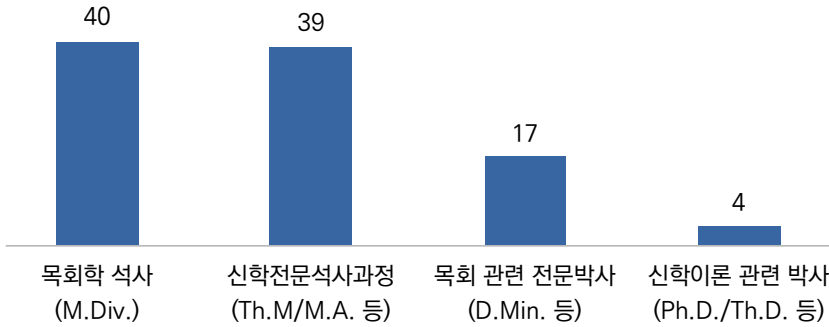
[그림] 신학 관련 최종 학위 (목회자, %)



목회를 위해 필요한 신학교육 학위 수준,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전문 석사'!

- 이번에는 목회를 위해 필요한 정규 신학교육 학위 수준을 물었다. '목회학 석사'(40%)와 '신학 전문 석사'(39%)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79%)의 목회자는 목회를 위해 석사 과정(목회학/신학 전문)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 앞서 언급한 현재 학위와 비교해 보면 신학전문석사과정과 목회 관련 전문박사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높았다.

[그림] 목회를 위해 필요한 정규 신학교육 학위 수준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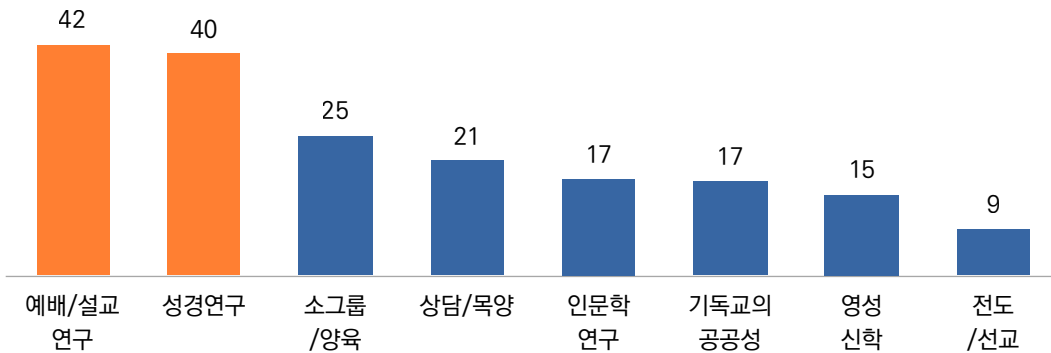
03

[목회자에게 필요한 교육]

현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학교육, '예배/설교 연구'와 '성경연구'!

- 현재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학교육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1+2순위) '예배/설교 연구'(42%)와 '성경연구'(4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그룹/양육', '상담/목양', '인문학 연구' 등의 순이었다. '소그룹/양육'이 3위로 '성경연구'에 이어 높게 랭크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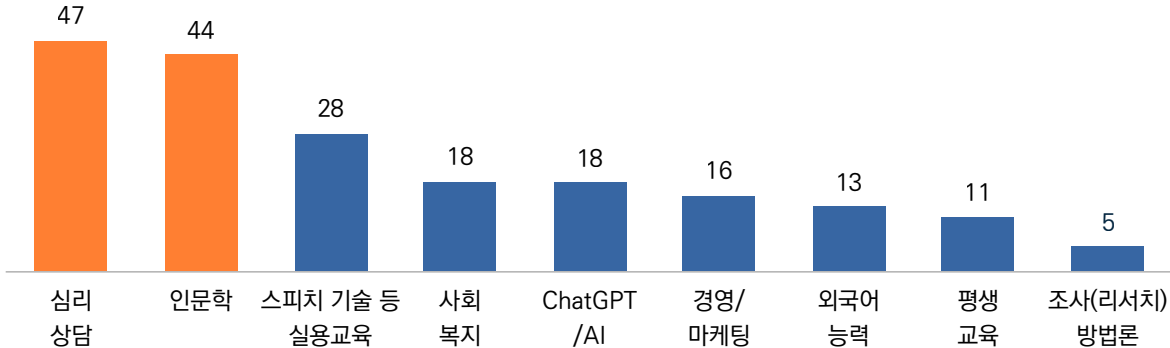
[그림] 현재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학교육 주제 (목회자, 1+2순위, 상위 8위, %)



목회 도움 되는 비신학 분야 주제, '심리상담'과 '인문학'!

- 이번에는 목회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비신학 분야에 대해 물었다. '심리상담'과 '인문학'이 각각 47%, 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스피치 기술 등 실용교육' 28%, '사회복지' 18%, 'Chat GPT/AI' 1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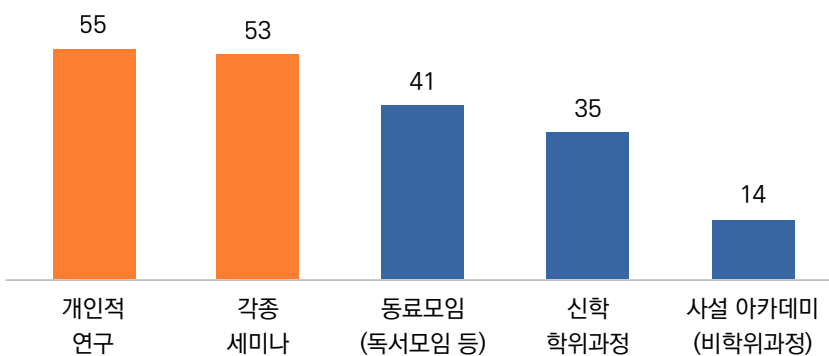
[그림] 목회와 관련하여 도움 되는 비신학 분야 주제(목회자, 1+2순위, %)



목회현장에 실질적 도움, '세미나' 효과성 높다!

-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1+2순위)을 물은 결과, '개인적 연구'(55%)와 '각종 세미나'(53%)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동료모임'(41%), '신학 학위과정'(35%) 순으로 '신학 학위과정'보다 '개인적 연구' 외에 '세미나'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데 가장 도움 되는 것(목회자,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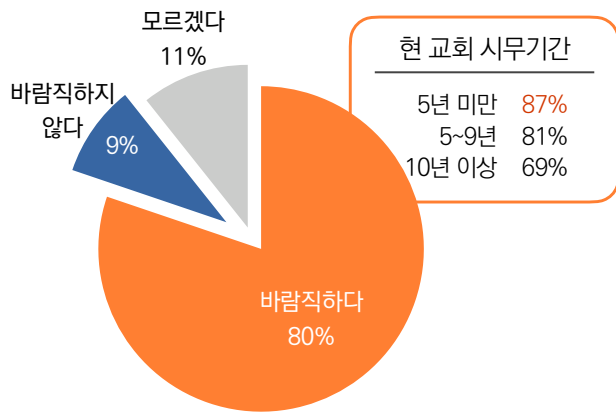
04

[평신도의 신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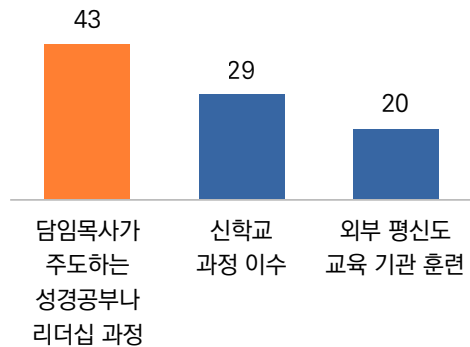
목회자 대부분, 평신도의 신학교육 이수 '긍정적'으로 평가

- 평신도의 신학교육에 관해 목회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의 목회자(80%)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현 교회 시무기간'이 짧을수록 긍정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이번에는 교회 출석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평신도를 목회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신학교(29%)과정'보다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성경공부나 리더십 과정'(43%)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평신도의 신학교육에 관한 인식 (목회자)



[그림] 평신도를 목회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교회 출석 기독교인,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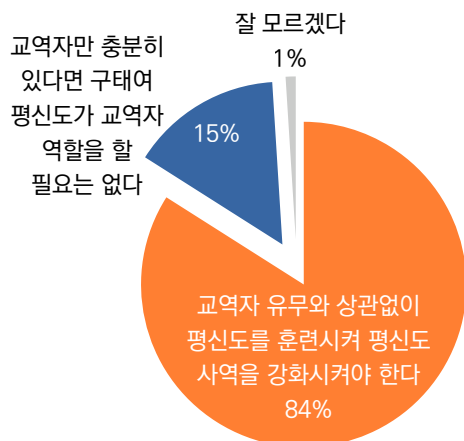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개신교인 조사), 2024.06.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5.22.)

목회자 84%, 평신도 훈련 통해 평신도 사역 강화해야

- '평신도 사역'에 대한 담임목사의 의견을 살펴본다.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평신도를 훈련시켜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가 8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역자만 충분히 있다면 구태여 평신도가 교역자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는 15%에 불과했다. 평신도 훈련과 사역 강화에 대한 목회자의 필요성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데이터이다.

[그림]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의견 (담임목사)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목회자 조사), 2024.06. (전국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7.~05.20.)

이번호 요약

1. 담임목사가 꼽은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

- 한국 신학교육의 문제점(1+2순위)을 묻고, 담임목사와 부목사 집단을 비교한 결과, 담임목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를, 부목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2. 담임목사의 정규 신학교육 만족도, 5점 만점에 3.5점으로 낮은 편!

- 정규 신학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담임목사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부목사도 3.7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3. 목회자 대부분, 평신도의 신학교육 이수 '긍정적'으로 평가!

- 평신도의 신학교육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목회자(80%)가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신학 교육과 현실의 간극 커...실천적 교육 필요" (LA중앙일보)

관련 성경 구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11)

목회 적용점

신학교육에 관한 목회자 인식 조사는 궁극적으로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목회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째, 주요 문제점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부재'가 지적된다. 신학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의 이론과 실천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어 목회자들이 신학적 지식을 실질적 사역 상황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예비 사역자들의 현실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목회 현장 실습 환경 제공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사례 연구 중심의 커리큘럼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장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교육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배/설교를 직접 시연하는 등 현장 중심 실습 교육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부목사들은 신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1위로 꼽았는데, 이는 신학교육이 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교회가 현대 사회와 소통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변화 관련 세미나 개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예배/설교 연구와 성경연구'에 대한 목회자들의 높은 요구를 엿볼 수 있었는데, 예배와 설교는 목회의 핵심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목회 현장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현장 중심 교육, 문화/사회 변화 흐름 읽고 소통, 설교 연구와 성경연구 강화)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목회자 재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2025년 언론사 신년
정치여론조사 주요 결과
2. 중도층(무당파)의 정치 성향 분석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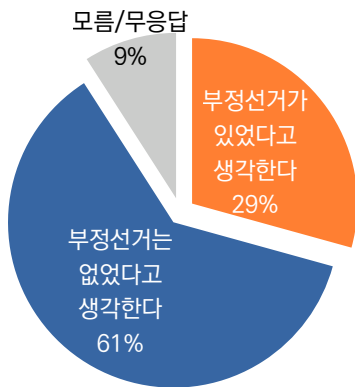
안락사 논쟁과 마주한 현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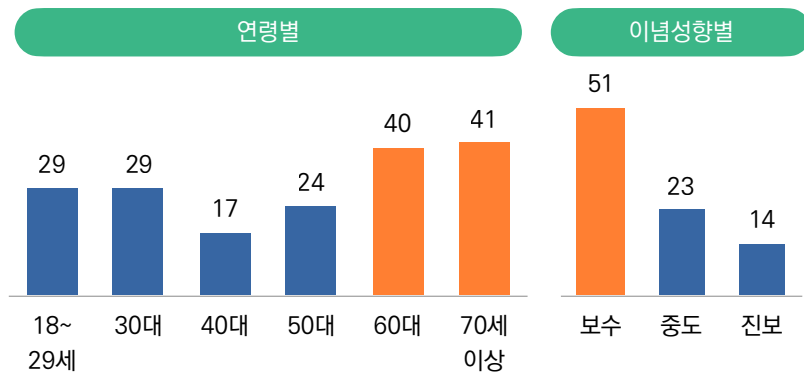
[2025년 언론사 신년 정치여론조사 주요 결과] 우리 국민 보수층, 절반이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

- 매해 초면 여러 언론사에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중 정치 관련 주요 이슈 몇 가지만 꼽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조사결과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61%,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9%로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 이상 연령층(40%대), 진보(14%)나 중도(23%)보다는 보수층(51%)에서 크게 높았다. 특히 보수층의 경우 절반이나 부정선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의견



[그림] 연령별/이념성향별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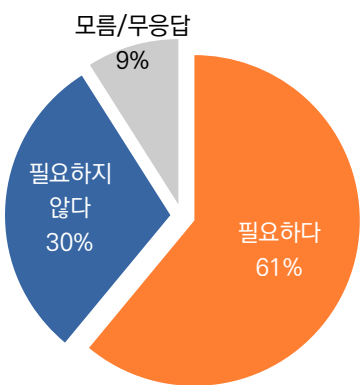


※출처 : MBC, 2025년 신년 특집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 통계표, 2024.12.31. (코리아리서치,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무선전화면접, 2024.12.29.~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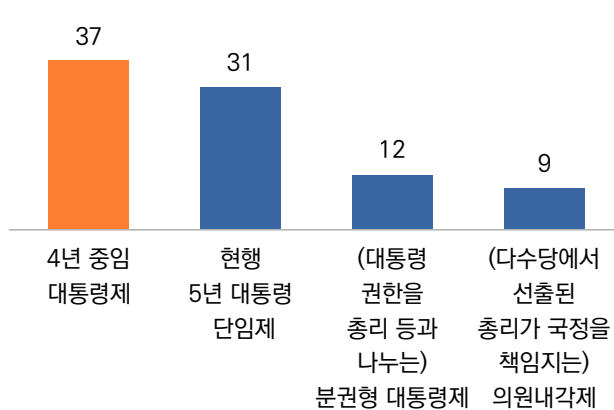
국민 61%, 개헌 필요하다!

-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61%, '필요하지 않다' 30%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배 정도 많았다.
- 개헌 시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7%로 '현행 5년 대통령 담임제'(31%)보다 다소 높았고, 그 외에 '분권형 대통령제'(12%), '의원내각제'(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개헌 필요성 인식*



[그림] 개헌 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 (%)



※출처 : KBS, 2025년 신년 여론조사 결과표, 2025.01.01. (한국리서치,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무선전화면접, 2024.12.29.~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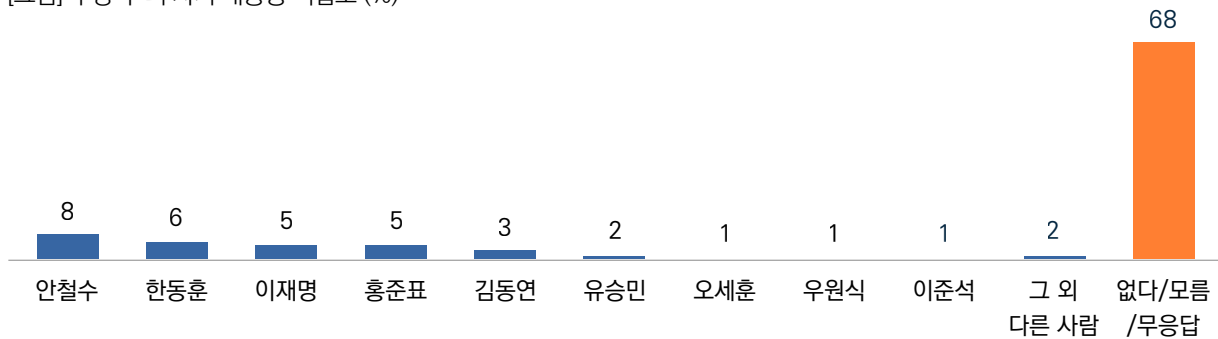
*4점 척도



[중도층(무당파)의 정치 성향 분석] 무당파의 68%,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 없다!

- 국내 4개의 메이저 조사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공표하는 전국지표조사의 최근 결과 중 탄핵정국에서 야당도 여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의 차기 대통령 호감도를 살펴본다. 대체로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단위 단일 선거에서는 보수, 진보 양 진영이 이미 진영논리로 투표 성향이 결정되므로, 중도층 표의 향배가 결국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도층의 정치 성향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넘버즈에서는 중도 성향이 강한 무당파의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안철수' 8%, '한동훈' 6%, '이재명' 5% 등의 순으로 모두 10% 미만이었으며, '없다/모름/무응답' 비율이 68%로 사실상 무당파 10명 중 7명가량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다',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기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될지 판단하기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림] 무당파*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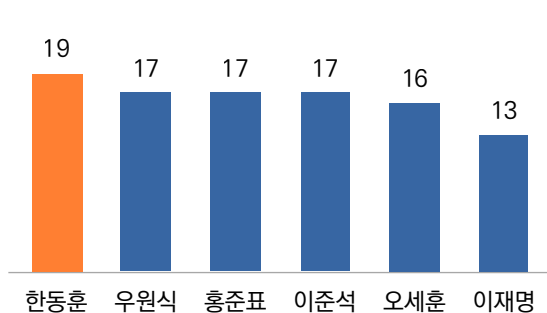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 제138호, 2025.01.09.(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 면접조사, 2025.01.06.~01.08.)

*지지정당 없음/모름/무응답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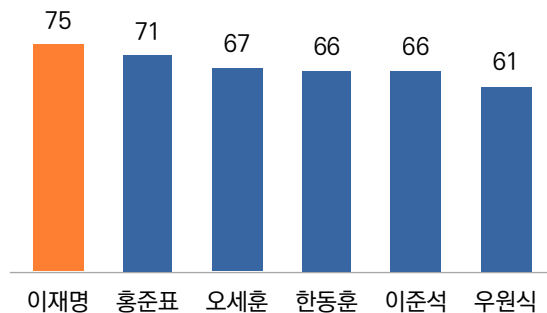
무당파 기준, 대선 후보 중 호감도 한동훈 1위, 비호감도 이재명 1위!

- 이번에는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6명의 인물을 제시하고, 무당층에게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다. 그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률은 '한동훈'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우원식'(17%), '홍준표'(17%), '이준석'(17%) 등의 순이었다.
- 반면 '호감이 가지 않는다'의 경우 '이재명'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홍준표' 71%, '오세훈' 67% 등의 순이었다. 모든 후보가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무당파의 대선후보 호감도 ('호감이 간다' 비율, %)



[그림] 무당파의 대선후보 비호감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 비율, %)



※출처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 제138호, 2025.01.09.(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전화 면접조사, 2025.01.06.~01.08.)

안락사 논쟁과 마주한 현대 교회 “더 좋은 죽음이 있다고 믿는 세상”

이상원 교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2024년 스위스에서는 안락사를 위한 기계 장치인 사르코 캡슐이 등장하며 세계적인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시켰다. 사르코 캡슐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조력 자살 옹호 단체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의 설립자 필립 니츠케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캡슐 내부에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등받이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 버튼을 누르면 밀폐된 캡슐 안으로 질소가스가 분사되며, 사용자는 잠든 상태에서 수 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엑시트 인터내셔널은 이 과정을 평화롭고 빠르게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 캡슐의 첫 사용자는 64세 미국인 여성으로, 실제로 이 캡슐을 이용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캡슐을 도입한 스위스의 ‘더 라스트 리조트’ 사가 제품 안전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질소 사용이 화학물질법의 목적 조항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스위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캡슐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안구백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2024년 7월 5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이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말기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위[1] “조력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의사가 이를 돕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2] 이 두 사건은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고전적인 생명윤리의 질문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안락사의 다양한 정의, 그러나 ‘본질은 하나’

안락사를 지지하는 진영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비판을 회피하려 시도한다. 그중 하나는 안락사의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여, 마치 허용 가능한 안락사와 허용 불가능한 안락사가 존재한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안락사 지지자들의 교묘한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1.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구분

‘좋은 죽음’ 또는 ‘안락한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euthanasia)는 회복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 상태나 이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질병 상태에 처한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직접 또는 후견인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종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직접 종결시키거나,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치나 약제를 준비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는 적극적 안락사, 후자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고 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구분은 의미가 없다.

2.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의 구분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경우 시행되는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로,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정적이거나 대리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안락사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생명을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자발적 안락사보다 윤리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21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08호 \(2025년 1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평가, 대통령 탄핵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38호 \(2025년 1월 2주\)](#)

- 탄핵에 대한 의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 평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등

사회 일반

["교사 51%, 학교 경제교육 부족해"...이론 중심·입시위주 지적](#)

연합뉴스_2025.1.10.

[교육 수준 낮을수록 자살률 최대 13배 높아져](#)

중앙일보_2025.1.9.

[건보 보장률 64.9%, 전년보다 0.8%p 하락...4대 중증질환은 81.8%](#)

연합뉴스_2025.1.7.

[국민 과반 "의사 수 부족"이지만...70%는 "의정 갈등 피로감"](#)

중앙일보_2025.1.7.

[3층 연금만 믿지 마세요... 은퇴 후 40년 '재앙' 안되려면](#)

한국일보_2025.1.12.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2위는 일본, 1위 국가는?](#)

조선일보_2025.1.9.

["코코야, 다음 생애 꼭 다시 만나자"...반려동물 장례식장 직접 가보니](#)

매일경제_2025.1.5.

[\[새해맞이 - 2025년\] 새해맞이와 2025년 계획](#)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1.8.

[2025년 상반기 여행계획](#)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1.8.

청년 · 청소년

[의사·판사 다 제쳤다...초등 고학년 43%가 꿈은 '장래희망 1위'](#)

중앙일보_2025.1.9.

[초등학생 문해력 '빨간불'... 6학년 3명 중 1명꼴 "책 거의 안 읽어요"](#)

동아일보_2025.1.9.

경제 · 기업

[日실질임금 4개월째 뒷걸음질...대기업들은 초봉 인상 '러시'\(종합\)](#)

연합뉴스_2025.1.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5060 자영업자 '황혼빛' 737조원...2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

연합뉴스_2025.1.12.

[잘나가던 자영업자마저 한숨... 대출 연체율 팬데믹때의 3.4배](#)

동아일보_2025.1.9.

["300인 이상 국내 사업체 대출 초임 5000만원 넘어"](#)

동아일보_2025.1.12.

["32세까진 신입 지원해야죠"...Z세대 취업 마지노선 사라진다](#)

매일경제_2025.1.12.

[2024 직장인 점심식사 및 구내식당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1.7.

국제 · 환경

[기후재앙 '1.5도 마지노선' 첫 붕괴...작년 지구 가장 뜨거웠다](#)

한겨레_2025.1.12.

[86.7%...미 의회는 여전히 기독교가 다수](#)

한국일보_2025.1.8.

건강

["60대 그 어르신 '격노', 전두엽 위축 탓"\[서영아의 100세 카페\]](#)

동아일보_2024.12.14.

[\[김길원의 헬스노트\] 성인 열에 넷은 이것...이제 '병'으로 불러야 할까](#)

연합뉴스_2025.1.8.

[매일 '이것' 한잔 마셨더니..."대장암 발병 17% 감소" 깜짝 결과](#)

중앙일보_2025.1.9.

기독교 · 종교

["태권도장·미용실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일보_2025.1.12.

[목회자 24% "작년 돌아보니 감사"... 18% "후회·아쉬움"](#)

국민일보_2025.1.14.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곁에있는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묘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선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륜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도원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지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곁에있는교회(담임목사 이광희), 수원성교회(담임목사 이경희), 포도원교회(담임목사 김문훈)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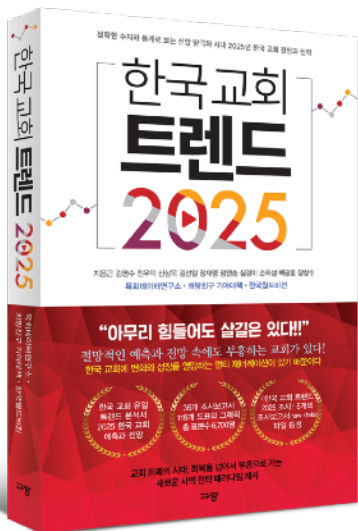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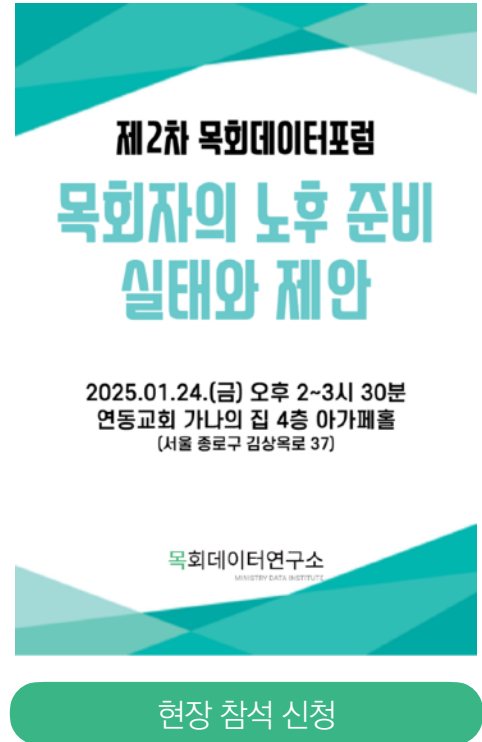
제2차 목회데이터포럼,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제안'

목회데이터포럼은 한국교회에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여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포럼입니다.

- 1) 주제 :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제안
- 2) 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3)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 4) 주요 내용

내용	발표자
1. 목회자의 노후 준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백광훈 원장 (문화선교연구원)
2. 100세 시대 목회자 은퇴 준비 제안과 절세 전략	김남순 소장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실시간 온라인 중계 예정이며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